



한국 최대산별 금속산업연맹 뒀다

금속·자동차·현충련 통합...
19만 조합원 산별노조 건설 온 힘

손나구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교육선전국장



금속 세조직 합쳐 금속산 업연맹 만든다

지난 2월15일 서울 잠실올림픽공원 제3 경기장에서 184개 노조 19만 조합원을 대표한 파견대의원 1천 2백여명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창립대회를 열고 국내 최대 산별연맹 금속산업연맹을 띄웠다.

민주노총 내 금속관련 연맹체인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충원으로 구성된 「금속세조직통합준비위원회」가 1년 가까이

벌어온 세 조직 통합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거둔 것이다.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선인·강령·규약을 만들고 초대 위원장에 단병호 민주금속연맹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에 조준호 자동차연맹 위원장, 사무처장에 이홍우 현충원 수석부위원장 등 초대 임원을 뽑았다.

연맹은 강령에서 △ 민주노조운동 발전 △ 노동조건 개선과 성차별 해소 △ 공동교섭과 산별노조 건설 △ 정치세력화와 민주사회 건설 △ 경제민주화와 제도개혁 △ 국제노동운동 연대를 주요과제로 잡고

올해는 IMF체제에서 노동자 생존권 확보, 산별노조 건설 계획 수립, 정치세력화 및거름 마련 등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연맹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 정리해고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 개발해체 등 경제민주화 △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임단협 산별 중앙교섭 △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당장 올 임단협에서 가맹 노조의 교섭권을 넘겨받아 △ 산별교섭구조 확립 △ 평균임금 6.6%~9% 인상 △ 정리해고 노사합의 등 고용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금속사용주연합단체를 상대로 산별별 중앙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금속산업연맹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서비스, 대우자동차, 대우조선, 쌍용·아시아자동차, 현대정공, 한국중공업, 오리온전기, 대우중공업 같은 덩치 큰 노조를 비롯해, 조직 규모가 184개 노조 조합원 19만여명에 이르는 국내에서 가장 큰 연맹이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수 56만명의 35%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중공업, 기계금속 등 금속산업 핵심주력이자 시장지배력과 경쟁력이 뛰어난 사업장, 그래서 산업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더구나 87년 이후 부쟁권봉이 강한 노조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다.

한편 금속산업연맹 창립에 따라 민주금속연맹과 자동차연맹은 해산되었으며 현

총련은 현노협으로 전환해 활동하고 있다.

금속산업연맹 창립에 담긴 뜻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통털어 가장 큰 산별연맹으로 금속산업연맹이 출범한 일은 여러 가지로 뜻깊은 일이다. (한국노총 안에서는 화확노련이 13만 조합원으로 덩치가 가장 크다.) 우선 먼저 세 개로 쪼개져 활동하던 조직이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내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세 조직이 활동해온 역사는 나뉘대로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대다수 현장 간부와 조합원들이 '분열'로 받아들이고 있어 상급단체 활동에 대해 실망과 냉소 분위기가 강했던 게 사실이다. 또 상급단체가 서로 달라 같은 금속산업이면서도 꼭 필요한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활동에서 입체감 있는 연대활동을 벌이지 못하여 '철의 노동자는 하나'라는 동질감을 만들기 어려웠다. 나아가 세 조직끼리 단위노조를 서로 가입시키려 하는 따위의 불필요한 경쟁도 있어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진짜 조직사업'은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쓰게 되었다. 세 조직 통합은 이런 문제를 발판히 씻고 건강한 연대활동, 실속있는 공동활동을 벌일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한 것이다.

둘째로 노동운동은 '쥘수' 운동이기에 통 크게 단결한 것 자체에 중요한 뜻이 있다. 금속 세 조직이 모두 5만에서 8만 규모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조직력과 투쟁력을 뽐내며 활동해왔지만, 여차피 10만이

채 안되는 연맹체로서 투쟁력이나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할 수 있는 일 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았다. 이제 금속산업연맹은 20만에 가까운 쪽수로 '뭉가 한 번 해볼만한'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산별교섭·중앙교섭을 벌일 수 있는 힘과 규모와 정책역량, 정부와 자본의 노동통제에 맞서는 대응능력을 갖춘 것이다.

셋째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체계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 산별노조 건설을 앞당기고 민주노조운동이 산별노조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산별노조로 가려면 조합원들에게 기업별노조를 대신할 '믿을만한 대안'을 보여줘야 하고 결국 그 일은 바로 상급단체가 얼마나 힘과 돈과 사람을 갖춰 조합원들이 믿을만한 대안으로 우뚝 서느냐 하는 문제로 된다. 이제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성공하기만 하면 몇 년 안에(될 수 있으면 2,000년이 오기 전에) 꿈에도 그리던 「전국금속산업노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분명한 계획과 충분한 준비로 힘과 지혜를 모아 힘과 규모를 갖춘 산별노조 건설에 성공한다면 전체 민주노조운동은 빠르게 산별노조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금속산업연맹에 뒤이어 2월27일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3만명 규모)가 뜬 일이나 4월19일 한국통신 같은 공기업이나 공공부문 노동자 조직인 공공연맹(출발은 8만명 예상)이 뜬 예정으로 있는 등 바야흐로 민주노조운동은 산별노조시

대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다.

금속산업연맹을 만들기까지

‘옥동자’ 금속산업연맹은 ‘오랜 산고’ 끝에 태어났다.

87년 투쟁의 성과를 묶어 현대그룹노조끼리 연대활동을 조직하기 위해 만든 현총련, 95년 말 자동차노조들의 연대활동조직으로 태어난 자동차연맹, 전노협과 조선노협 가맹 노조를 중심으로 96년 초 창립한 민주금속연맹... 전노협시대를 지나 민주노총시대가 열린 1996년 5월 세 조직은 국제노동자연대활동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국제금속노련 민주노총협의회」(KCTU-IMC)를 만들고 한두 차례 간담회를 열기도 했으나 내용 있는 교류는 못했다. 특히 세 조직 통합에는 이른바 대산별이나 소산별이나, 지역이나 업종이나 하는 논쟁과 함께 노동운동진영의 구조조정'이 얽혀 있어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재벌 주도의 산업구조조정을 겨냥한 신경영전략을 비롯한 자본의 노동통제전략 앞에 기업별노조는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현장은 갈수록 무너지고, 상급단체도 연대활동을 강화하며 나름대로 대응해왔으나 실제 무너지는 현장에 희망을 줄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날치기 노동법 개악에 맞선 96년말-97년 초 총파업투쟁은 세 조직 20만 노동자

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준 투쟁이자 그 성과 또한 컸으나 '총파업 후유증'으로 현장조직력은 다시 한번 시련을 맞기도 하였다. 현장 조합원과 간부들이 기업별노조의 무력한 현실을 실감하는 가운데 대안은 오직 하나 강력하고 제대로 된 상급단체(민주노총의 강화를 포함한)를 만들고 그 활동을 거쳐 산별노조를 하루빨리 건설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절실할수록 세 조직으로 나뉘어 통합하지 못하는 현실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함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1997년 3월27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현총련이 통합을 제안하였고 4월부터 각급 모임과 토의의 '긴 굴'을 지나 9월 이후 7차례 통합추진 위원회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세 조직 임원과 주요 대공장노조 위원장 등 30인으로 구성된 통합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절차를 밟게 되었다.

조직 이합을 정하고, 의무금은 1,000원으로 하고(민주노총 의무금 등 기타 멤버는 따로), 대의원은 단위노조에서 조합원 500명당 한 사람씩, 중앙위원은 업종별로 2,000명당 한 명씩 배정하기로 했다. 10곳에 지역분부를 두고 자동차, 조선, 일반금속 3개 업종분과를 두기로 했다. 오랜 토의 끝에 세 조직에서 일하던 사무처 동지들은 그대로 일하기로 하고 임원도 거의 합의하였다.

하지만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이 11월 전국금속노동자대회와 12월 초순준 세 조

직 임원의 전국순회간담회를 빼고는 지나치게 상충중심으로 절충하는 식으로 홀려 조합원들이 폭넓게 참여하지 못했으며, 당면투쟁과 사업을 함께 해나가며 힘차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이 나온 것이 사실이다. 창립대의원대회에서 다수 대의원의 찬성으로 초대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기로 한 것도 이런 비판이 반영된 것이었다.

더구나 창립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른바 노사정 합의를 했다가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사퇴하고, 다시 총파업을 결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비대위에서 철회되는 과정이 겹치면서 금속산업연맹 창립의 기쁨과 빛남이 덜하게 된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금속산업연맹 ... 오늘과 내일

실업자가 150만을 넘어서고 19만 조합원 거의 모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IMF시대가 시작된 이후 조합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00여명이 고용불안과 생활고로 자살하는 가운데서 조직을 창립하고 3월말 현재 한 달 반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중앙·지역 사무처 인선과 10개 지역본부·3개 업종분과 구성, 임시대의원대회 한 차례, 중앙위원회 두 차례, 중집회의 한 차례 등 조직정비에 많은 힘을 쏟았다. 신고필증은 별 무리 없이 나와 합법연맹으로 출발하였으나 수 만명 조직운영의 경험 - 그것도 서로 다른 - 으로 20

만 조직을 처음부터 손쉽게 운영하기는 어려웠으나 차츰 정비되고 있다.

조직규모가 커지다 보니 회의 참가대상자도 많고 정족수가 안돼 회의가 무산되는 일도 생겼다. '산별노조 정신'에 따라 대의원과 중앙위원을 조합원수 비례로 뽑는 등 조직운영 전반이 '쪽수와 돈'에 따라 진행되는 데 대해, '목표는 산별노조지만 아직은 기업별노조의 연맹체'인 현실에서 조합원수 250명 미만 100여개 노조는 연맹대의원이 단 한 명도 없어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도 심각하게 나왔다. 앞으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 바로 조직을 올곧게 정비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IMF시대, 실업대란의 시대, '임금인상은 커녕 모가지만 붙어있으면 다행'이라는 사상 최악의 정세, 교섭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나아가 어떻게 기업별노조와 기업별교섭을 뛰어넘어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구조로 나아갈 것인가? 오랜 토의를 거쳐 연맹은 올해 사업의 중점을 △ 조직 결속력과 지도, 집행력 강화, △ 중앙교섭으로 고용안정·임단협 승리, 산별 교섭체계와 산별노조 타당 마련, △ 노조탄압 분쇄와 현장조직력 강화, △ 재벌해체 같은 사회개혁을 위한 민중연대투쟁에 두기로 하고 핵심 사업으로 산별 중앙교섭을 밀고 나가고 있다. △ 고용불안 해소와 고용안정·실업대책 마련 △ 노동시간 단축, 경영참가 등 공동단체협약 요구 △ 임금 6.6% ~ 9% 인

상 △ 산별교섭구조 확립 등이 중앙교섭의 주요 요구다.

단위노조마다 조합원 교육선전을 거쳐 교섭권을 연맹에 넘기기 시작하여 3월말 현재 60개노조 9만7천여명이 이미 교섭권을 넘겼고 4월초까지 80여개노조 1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자동차노조가 조합원 총회에서 75%의 높은 찬성률로 연맹에 교섭권을 넘긴 것을 비롯해 현대차서비스, 대우조선, 한국중공업, 대우중공업, 한라중공업노조 등 큰 공장 노조들이 앞장서고 있어 공동투쟁의 앞날은 꽤 밝다. 몇 년을 내다보며 중앙교섭을 추진하되 산별 중앙교섭으로 모아지는 공동투쟁의 기운을 살려 5월초 공동교섭, 집단교섭, 대가전 교섭을 함께 밀고 나갈 계획이다. 이미 4단계로 짠 세부투쟁계획을 확정하고 시작된 이 투쟁을 얼마나 힘차게 벌여내느냐, 여기에 심각한 고용불안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고 생존권을 지키는 일과 함께 조직을 강화하는 모든 일이 걸려있다.

아울러 연맹은 물론 민주노조운동의 앞날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한가지 더 있다. 바로 상급단체에 대한 믿음을 하루빨리 회복하는 일이다. 중요한 일은 반드시 총회(의결기관)에서 결정하는 풍토를 어용노조와 민주노조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온 조합원들에게 올해 1, 2월 민주노총의 노사정 합의에서 총파업 철회까지 이어진 사태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더구나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어 고용불안을 부채

질하는 상황은 침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급단체와 지도부에 대한 크나큰 불신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꼭 그만큼 조직력은 떨어지고 있다.

겸허한 반성, 기본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조직운영, 지도자와 간부부터 철저하게 혁신하는 노조운동의 자기개혁... 더 상대하기 힘든 '국민의 정부', 바야흐로 다가오는 합법노총시대... 민주노조운동이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조직을 확대 발전하느냐, 아니면 중심을 잃고 자칭 40년 노동자 친구의 전략에 휘말려 노사협조주의에 흡수당하느냐가 참으로 엄중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150만 금속노동자의 내일을 짊어지고 민주노총의 중심부대로서 자기 할 일을 다하기 위해 금속산업연맹은 힘차게 출발하였다. 그러나 앞날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하지만 20만 조합원의 힘과 지혜를 믿고 운동의 기본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성실하게 사업하고 단결투쟁해 나간다면 안 될 일은 없을 것이다. 진정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산별노조의 밝은 내일을 열어 짓히는 그날도 반드시 올 것이다. ❖